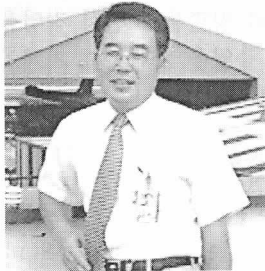


대한항공(주) 김해공장

선진수준의 안전관리 활동



유범용 차장

대한항공 하면 승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항공 운송업체 라고만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학생처럼 그냥 묵묵히 해내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행기를 만드는 일이다.

점보 비행기 한대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은 수십



만개 이고, 부품 각각의 오차 한도가 10만분의 1 인치 미만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25년간 차곡 차곡 기술과 의지를 다져온 대한항공 김해공장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효시로써 오늘도 2,000여 명의 항공 기술자들과 800여명의 지원 요원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곳이다.

1977년 한국 군 500MD 헬기 1호기 출고를 시작으로 최초 국산 전투기인 F-5E/F 전투기 제작 하였고, 지금은 UH-60 중형 헬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B-747, B-777 점보기 날개 부품과 A-300 중앙 동체 부품등 각종 항공부품을 직접 생산하여 보잉, 에어버스 등 세계 항공제작사에 수출 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군용기 민영정비 센터이자 동아시아 최대의 항공기 종합 정비창으로서 한국군과 미군의 각종 최신예 항공기의 정비 / 수리 / 개조 사업은 물론 각종 민항기 정비, 무궁화 1,2,3호 통

신위성 위성체 개발 등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 우주사업의 미래를 열어 가고 있다.

최첨단 기술 집약체인 대한항공 김해공장의 안전관리는 25여년 전부터 미군 정비사업 시작과 함께 미국의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공장 실정에 맞도록 개선, 적용하고 있다.

안전 관리 활동을 소개 하면

첫째, 정해진것을 지키는것

안전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즉, 근원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안전 추구 성향이 설정
되면 이 목적을 달성 하
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항공법 등 관계 법규
를 토대로 전직원이 쉽
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
는 부분별 세부 절차를
수립후 전직원이 지키도
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 견
인시 총 지휘자, 조종석
정비사, 양쪽 날개끝에
서는 WING GUIDE, 견인차 운전자 등 각 개인
별 임무를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한 **항공기 견인시
안전 준수 관련 절차**를 작성하고 정해진 각자의 임
무를 지키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둘째, 월간 안전 목표 설정

협력업체를 포함한 김해공장내 안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익월에는 동일 문
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월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
여 현장 부서에서 개선 하도록 지침을 주고 이 지
침의 이행 여부를 안전 관리팀에서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

셋째, 안전·보건 개선 지시서 제도

안전 관리팀의 각종 지시, 특별점검, 월간목표
등을 현장부서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상태가 불량한 팀 또는 개인
에게는 **안전·보건 개선 지시서**를 발부하여 시행
조치 토록 함은 물론 동일 결함의 재발 방지 계획
을 현장부서 자체적으로 수립 토록 유도 하고 연2

회 직원 개인별 근무 및
업적평가시 안전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경영층 관심 유도

매 분기별 안전관리활
동분석보고서를 경영층에
게 보고 하고,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
에 경영층과 협력업체장
이 참석토록 함은 물론 경
영층이 회의를 주도 하도

록 각종 **Safety Management Tool** 을 제공하
여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
다. 다소 추상적일수도 있는 안전 개념을 경영층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조 하므로써 그 실체
가 구체화되고 활성화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전 활동의 결과 수송용기계기구 업종
최초로 **무재해 5배 달성탑 수상(1986)** 이후 각종
무재해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등의 수상경력
과 함께 최근 **3년간 재해율이 0.09%** 로써, 전국
재해율에 비해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최첨
단 산업 주도의 항공사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 관
리 활동을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 문의 : 051-970-5147